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5.08)

1. 에스유엠 투자금 납입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5년 8월 13일부로 자율주행 풀스택 및 원격제어 기술을 보유한 (주)에스유엠에 총 15억원(투자재원: 스마트안다-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 안다하림전북강원전주지역혁신펀드, 스타트업코리아센틱스안다전북혁신펀드)을 투자하였습니다.

에스유엠은 서울대 VDCL 연구진 출신이 설립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인지·판단·제어·측위 전 영역에 걸친 풀스택 기술과 원격제어 시스템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 노선 점유율 1위(M/S 85%), 국내 자율주행 버스 노선 점유율 1위(M/S 40%)를 기록하며 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는 PBV 플랫폼 기반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수행하였고, 기아자동차와는 원격제어 기술의 차량 옵션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에스유엠은 현대·기아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 외부 기술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기아차 다목적 EV 시리즈에 동사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2025년 매출액 51억원, 2027년 매출액 266억원을 예상하며, 2년 만에 5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항만터미널로부터 약 840억원 규모의 자율주행 야드트랙터 수요 의향을 확보하였고, 국내 전체 시장 확대 시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 진입이 전망됩니다.

2027년 하반기 상장 시 당사 추정 기업가치는 약 1,192억원으로 전망되며, 투자수익률은 약 2.4배(IRR 57%)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베로보틱스 투자금 납입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5년 8월 14일부로 산업용 물류로봇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주)베로보틱스에 10억원(투자재원: 스마트안다-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 스타트업코리아센틱스안다전북혁신펀드)을 투자하였습니다.

베로보틱스는 다양한 브랜드의 AGV/AMR을 1,000대 이상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독보적인 관제시스템(ACS)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쟁사 대비 10배 이상 확장된 성능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동사는 노코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여 설치 및 안정화 기간을 최대 80% 이상 단축시키며, 고객사 제조 현장에서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SDI의 1차 벤더사로서 헝가리, 말레이시아, 미국 공장에 ACS를 구축하며 약 5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S그룹 계열사의 ACS 표준화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S그룹 계열사가 15개사 글로벌 경쟁을 거쳐 동사를 선택한 성과로, 기술 경쟁력과 빠른 대응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당사는 금번 투자를 통해 동사가 삼성SDI와 S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대기업 고객사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 상장 시 당사 추정 기업가치는 약 1,103억원으로 전망되며, 투자수익률은 약 3.6배(IRR 53%)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년 8월 멘토링협의체 세미나

-차이나 퍼즐: 중국은 왜 강한가?-

3. 8월 멘토링협의체 세미나

2025년 8월 28일 멘토링협의체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교수님께서 '차이나 퍼즐: 중국은 왜 강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교수님의 저서 '차이나퍼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China Peak론과 현실

- 중국 위기론은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은 달랐음. 중국은 여전히 세계 평균(약 3%)을 웃도는 5%대 성장률을 이어가며, 제조업 세계 비중 35%(미국 16%), 수출 3조 3,800억 달러(세계 1위) 등 대부분 지표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 미중 전쟁의 본질: 관세가 아닌 기술과 금융

-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중 갈등은 단순 무역전쟁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패권 다툼으로 전환됨.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으나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고, 중국은 내수 확대와 R&D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 중임. 향후 전쟁은 자원·금융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이 강한 이유: CEER 전략과 성장 동력

- 중국은 지난 30년간의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CEER 전략을 구축함
 - C(Competition):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 E(Ecosystem): 글로벌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 E(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로 원가 절감
 - R(R&D):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 경쟁력 확보
-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디지털 플랫폼 경제(알리바바·텐센트), 첨단 기술 자립(화웨이·DJI·CATL) 등을 통해 빠른 산업 전환을 달성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위기론으로만 해석하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중국은 EV(2023년 글로벌 판매 640만대, 세계 점유율 60%), 배터리(2024년 CATL 세계 점유율 37%), 반도체(팹리스 설계 세계 2위, 파운드리 점유율 3위) 등 미래 산업에서 이미 한국을 빠르게 추월 중임. 한국은 중국을 단순히 외연하기보다 실력 비교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함

■ 결론: 중국의 미래와 우리의 과제

- 중국은 '필패(必敗)'가 아니라 '필패(必霸權)', 즉 패권을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됨. 이미 구매력 기준 GDP 세계 1위, 외환보유액 3.2조 달러(세계 1위), 글로벌 제조업 비중 35%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과제는 단순한 '탈중국'이 아니라, 미중의 상호견제 상황에 맞게 중국과 미국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것임